

제43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7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
- 국토교통부 소관

(09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가장 먼저 와 주신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 그리고 안태준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그리고 늘 가장 먼저 오시지만 오늘 두 번째로 와 주신 김도읍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김희정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겨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위해서 남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국토교통부 소관

(09시05분)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보류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를 하셨습니다.

국토 분야 중 첫 페이지 2건, 청년월세지원의 650억과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279억 4100만 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대의견 5건에 대해서도 모두 합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로 논의될 사항은 자료 2~4쪽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비 10억 원에 대한 것과 3쪽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의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 4억 원 증액 사업, 그리고 4쪽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기반 대금직불시스템 ISP 수립 1억 3300만 원 신설에 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강조된 반면에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추가 논의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택지 사업의 집중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 포화 우려가 지금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게 1·29 대책이 지난 문제인 정부 때 실패한 대책인데 발표하고 보니까 주민들께서 교통대란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거라서 추경예산에 담아 달라 이 취지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도심주택 공급 확대는 지금 정파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께 아주 시급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김도읍 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은 민간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또 개발이익환수제라든지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실수요자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정부가 사실 원망스러워요.

어제도 ‘이 정부가 이념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정보를 말씀드리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발끈하시던데 그렇든 저렇든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다 바라는데, 전문가들도 바라고 실수요자들도 바라고 서울시도 바라고, 그런데 안 하면 왜 안 하는지는 이유라도 설명을 해 줘야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뽕뽕 숨기고 말이야, 재탕 삼탕 실패한 정책들 내놓고 부랴부랴 거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광역교통체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차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규제를 혁파하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다음 전체회의 때는 국민들께 말씀을 주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손명수 위원 차관님, 이번에 수도권 남부권하고 동부권에 비교적 큰 규모의 택지공급이 지금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손명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주택공급대책을 하면서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공급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늘 교통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해 왔어요. 그렇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손명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앞으로 이번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에 광역교통대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규모 택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손명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면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공급을 할 때는 반드시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선례를 만들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걸 속기록에 남기고.

이것은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덩그러니 집만 지어 놓고 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 왔잖아요. 오륙 년 걸리고 뭐 10년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일정 규모 이상, 그렇다고 100세대 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000세대, 1만 세대 이렇게 큰 규모의 택지공급대책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동시에 교통대책을 한다 이런 정책 방향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택지개발지구를 할 때마다 이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같이 택지개발 수가 남부권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39개 택지 그리고 동부권역에도 약 17개 택지, 이런 택지들이 많이 몰려서 광역교통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저희 수도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어쨌든 택지사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교통이 필수로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정책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국토부의 사업은 어떤 부처의 사업보다도 더 무겁게 가고 옮길 수 없는 인프라 구축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결정을 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연구용역사업 이런 전반적인 것은 이 자체가 본사업이 아니라 더 좋은 본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꼭 전쟁이 아니고 추경이 아니라도 국토부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데, 제가 크게 문제 지정한 것을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추경 사업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추경 사업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토부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음을 정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사업에 연동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기존에 국토부에서 유사하게 했던 사업 대비 계획이나 이런 게, 타임테이블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와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팀들 간에도 서로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보고서에 다른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줘도 과연 이렇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지적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단지 이 순간의 질의답변으로 모면을 하고 일종의 요식행위로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그게 국민들을 위한 민생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 그게 보였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다음에 정부 측에 발언할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제가 재차 지적하기 전에 의지를 밝혔으면 했는데 그것 또한 하지 않고 지금 다시 위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도록 만들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1·29 주택공급방안에 의한 용역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체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본사업에서도 준비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본사업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긴급했다면 지난번 본사업에서부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차관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그동안은 사업 있을 때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다 보니 미리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비슷한 용역사업이 하나는 12개월, 하나는 15개월 걸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지고 온 검토 용역사업은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있었던 사업보다도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데 용역 수행기간은 절반으로 줄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한 장짜리 종이 다들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날짜만 이렇게 몇 개월, 몇 개월 다시 고쳐 가지고 또 왔어요.

종이의 숫자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별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용역은 추경의 성격상 금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1년간 추진할 경우에는 한 대여섯 명의 연구진이 투입되지만 연구진을 충분히 투입해서 연내에 집중적으로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추경의 성격과 벗어나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짧아서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대로 과업 수행이 이대로라면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올해 안에 용역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진을 집중 투입하고 해서 연내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ISP 연구 관련해 가지고는 이종욱 위원님과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P는 계획적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을 만들 때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적극 협의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여부라든지 그리고 신규 구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금년 빠른 시일 내 계획을 만들어서 본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국토부가 저희한테 보고서 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큰 고민 없이, 제가 두 장 진짜 사진 찍어서 기자들한테 보고하고 싶어요, 국토부가 어떻게 사업하는 곳인지. 여기서 기자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워서 말 못 할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 답변 제출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제출과 설명에 대해서는 저와 간부진들이 함께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차관님,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네요. 자료제출과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계획이 계속 변동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알겠습니다. 계획도……

○김희정 위원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긴 계획이 좋지 않을 때마다 변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숫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숫자를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시간, 즉 타임테이블에 관한 것이고요.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틀린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수사를 받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김희정 위원님 지적사항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에요. 책임 있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기초 자료들이 때마다 달라진다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흔쾌히 심의를 해 주겠어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해외인프라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차관님, 지금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4억 정도 증액을 하는데 이유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공사 지연 우려,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여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예컨대 어떤 우려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뭔가 예상되는 상황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구체적으로는 우리……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해외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말씀드리면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발주처로부터 저희가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행사들의 하청인 중견·중소기업들이 돈을 못 받게 되고 거기와 일하고 있는 현지 근로자들 사이의……

○김도읍 위원 예컨대 어느 현장 같은 경우가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사우디, UAE, 카타르……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건설국장입니다.

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계기에 사우디 공사 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청사가 한국계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법률 분쟁에 굉장히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직접 지원을 해 가지고 실제로 마지막 분쟁에서 승소해서 중소기업이 예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지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180만 불입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180만 불을 수령하였습니다.

몇 년도……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21년도부터 22년도에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는…… 중동전쟁, 이란전쟁 관련해서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니까 전쟁이든 질병이든 공사가 중단되어서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금 회수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긴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종욱 간사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광역교통이라든지 공급대책에 관련된 거는 저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전에 해외인프라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도 그런 구체적 사례가 있고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 ISP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때 제대로 꼼꼼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희정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게, 제대로 일을 하면 왜 예산을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는 데 1억 300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계획 수립 잘해 가지고, 어제 시스템 구축하는 데 34억 든다고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하고 이번 ISP 계획을 협업해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때 심사를 받는데 김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또 이종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포함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또는 실효성이 없다 이러면 34억 본예산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이종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거는 구체적인 우리 건설시장에 국한된 거잖아요. 정부 전체 조달시스템 중의 일부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올해 그 ISP를 만들 때 정합성 있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예산을 만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을 할 때 꼼꼼히 이종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추진 과정도 이종욱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답변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2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집행률을 보니까 증액은 안 됐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4억 1000입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전체 예산.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전체 예산은 580억입니다.

○정점식 위원 25년도 예산.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565억 원입니다.

○정점식 위원 이게 그러면 25년하고 26년하고 똑같이 564억이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중에서 소위 이 전체가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으로 나간 겁니까?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법률 컨설팅 지원비는 4억 1000입니다.

○정점식 위원 4억 1000에서 지금 올해 다시 4억을 추가하겠다는 그 취지입니까?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추경에 이런 소액사업들을 가져온 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진짜 시급했으면 벌써 몇 달 전에 이·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 사업들을 추경 한다고 몇 달 미룬 건 아니잖아요. 교통대책 이런 건 빨리 해야 되지요. 하여튼 거기서 문제가 출발한 것 같고 앞으로 추경 할 때 이렇게 소액사업은 가급적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ISP 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국토부 사업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전체적으로 자금 관리라든지 아니면 대금지불시스템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 전체적으로 그런 검토가 됐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텐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중에 제가 헛갈리는 게 가상계좌 방식을 단순히 도입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금채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인지 약간 설명하는 중에 국토부 주도로 새로운 대금지불시스템을 만들려는 그런 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차관님이 답변하면서 이런 건 좀 잘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걸 만든다는 전제하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국토부 주도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총리실이나 기재부, 기재부 국고국이 전체 자금 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게 어차피 그쪽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시스템 접속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주도가 돼서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느 방식이 정부 전체적으로 좋은지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국토부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시고 그렇게 조건부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통과를 시키더라도.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부대의견에 이 해당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부대의견 넣어서.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우리가 회의가 한 30분 정도 후에는 전체회의로 또 넘어가야 돼서 하나씩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 10억 원에 대해서 혹시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국 소관 해외인프라시장 개척도 정점식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도 정부안 유지하는 거에 동의해 주시는……

○김도읍 위원 부대의견 달아서.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부대의견을 지금 바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전체회의가 바로 있어서 문구 한번 불러 드리면……

○소위원장 전용기 좋습니다. 한번 불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말씀 주신 내용 반영하면 ‘국토교통부는 대금지불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이전에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한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국토교통부는 대금지불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이전에 조달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한다’.

○이종욱 위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전용기 뽑아 주십시오.

- 손명수 위원 ‘수립 이전에’가 아니고 ‘수립 과정에서’.
-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런데 아까 이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셔서……
- 손명수 위원 수립 과정에서 해야지. 수립 이전에 어떻게 그거를 해.
- 이종욱 위원 이전에 해야지.
- 손명수 위원 이전에 어떻게 해요?
- 이종욱 위원 아니, ISP를 하기 전에.
-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ISP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달청, 국고국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잠시……
- 김도읍 위원 전문가이신 이종욱 위원님 의견을 좀 들어서 이전에……
- 이종욱 위원 문구는 제가 다시 볼게요, 같이.
-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문구는 위임하는 방식으로 뽑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 손명수 위원 저도 하나, 부대의견 중에서 3번 있잖아요.
차관님, 지금 우리가 전세사기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선구제하는데 새로운 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률을 90%에서 최대 7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금년 중 시행하는 것을’ 여기까지는 좋은데 ‘검토한다’로 되어 있어요. 검토한다는 의미가 뭐지요? 이걸 ‘검토한다’가 아니라 ‘추진한다’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검토한다’로 넘어가려고 ‘검토한다’로 써 놓은 거예요?
- 김도읍 위원 이럴 때 딱 제일 적합한 말이 ‘강구한다’……
-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실무자 선에서……
- 손명수 위원 추진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있습니다.
- 손명수 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4번도 ‘검토한다’인데 4번은 사실은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지금 3분의 1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토한다’로 됐는데 이게 같은 ‘검토한다’, ‘검토한다’로 되어 있어서 3번은 누가 봐도 앞에까지는 분명히 추진 의지가 보이는데 마무리 단어가 지금 적합하지 않아요.
이거 ‘추진한다’로……
-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추진으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한다’.
- 손명수 위원 ‘추진한다’로 바꿉시다, 이거.
- 소위원장 **전용기** 방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강구한다’ 정도의 멘트를 주셨는데……
- 손명수 위원 아니, ‘추진한다’.
- 소위원장 **전용기** ‘추진한다’로 해도 되겠습니까?
- 손명수 위원 동의하셨습니다.
- 이연희 위원 담보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해 보겠습니다.
- 김도읍 위원 통상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경우는 ‘강구한다’로……
- 손명수 위원 아니, 이거는 규정이라니까.
-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가 더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문구가 나왔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약간 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사업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내의 ISP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제하에 이 돈을 집행하지 마시고 집행하기 전에 정부 방침을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방침을 빨리 마련하면서.

○**이종욱 위원** 하면서? 하면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 외에 부처 협의라든지 이거 할 예산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정 위원** 잠시만. 그러면 이번 용역 안에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건 안 됩니까?

○**이종욱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용어로 하면 이걸 수시배정으로 묶으라는 뜻이에요. 묶고 이걸 수시배정으로 푼 사유가 정부 전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면 국토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내에서 하는 걸로 정해졌다 그러면 그때 집행하시고 안 그러면 이걸 집행 안 하는 거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문구는 위임해 주시면,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본회의 전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이종욱 위원님하고 위원장하고 함께 상의해서 위임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한말씀만 드리면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정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귀담아듣고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더욱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참고로 자꾸 차관님이 말씀하실 때 ‘조달청’ 이렇게 해서 제가 조달청장 출신이라서 혹시나 조달청에서 로비한 줄로 아시는 것 같은데 전혀 연락도 안 했고요. 실무자한테, 보좌진한테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답변을 잘못 하더라 그래서 제가 불편한 모양인데 더 이상 접촉하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조달청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디펜스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에서는 더 꼼꼼하게 야당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및 부대의견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윤종오 이건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회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회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한성수